

# 生産的인 人力需給을...

金枝泰

三亞건축사사무소 대표 前任會長



해마다 봄철이 되면 각급학교(대학, 전문대학, 공업고교 등)에서 수많은 건축전공 후진들이 배출되어 희망과 포부를 안고 사회에 첫발을 내딛지만 현실사회의 물정에 어두울뿐만 아니라 몸담고자 하는 건축계에 관하여는 더욱 미지의 세계인 까닭에 많은 관심과 막연한 憧憬 속에 기대를 갖는 반면, 장래 진로 선택에 따른 어려움과 초조감등으로 당혹한 상황에 놓이는 이들의 입장을 선배 건축인들은 일찍 경험한 바 있어 同情이 갈 수만 없다.

개구리도 긴 겨울잠에서 깨어나 꿈틀거린다는 경칩도 지났다. 따사로운 햇빛과 지구상의 森羅萬象의 변화속에 봄의 생동감이 온누리에 넘치고 있다. 작년 봄보다 올해의 봄은 유난히도 밝아보인다. 요원의 불길처럼 번졌던 민주화운동의 뜨거웠던 열기속에 끝내 6.29선언이란 귀중한 열매를 얻어냄으로써 정치적 후진성을 면치못하던 우리나라가 이제 선진대열에 끼어있는 인권의 민주화시대를 맞게된 기대때문이 아닌가싶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새시대를 맞게된 봄의 길목에서 우리 건축계의 주변상황을 俯瞰해 볼때 인력수급정책면에서 또는 건축전문인들의 발전향상 면에서 시정, 개선되어야 할 일들이 한두가지 아닌 것으로 보여 답답한 마음 떨어지지 않는다.

해마다 봄철이되면 각급학교(대학, 전문대학, 공업고교 등)에서 수많은 건축전공 후진들이 배출되어 희망과 포부를 안고 사회에 첫발을 내딛지만 현실사회의 물정에 어두울뿐만 아니라 몸담고자하는 건축계에 관여하는 더욱 미지의 세계인 까닭에 많은 관심과 막연한 憧憬속에 기대를 갖는 반면, 장래 진로선택에 따른 어려움과 초조감등으로 당혹한 상황에 놓이는 이들의 입장을 선배건축인들은 일찍 경험한바 있어 同情이 갈수만 없다.

문제는 이들을 전부수용할수 없는 사회적 여건 즉 취업의 마당이 극히 한정되어 활동할 기회를 얻지못한 많은 후진들한테 적지아니 실망과 좌절을 가져다주는 결과가 되므로 이러한 비생산적인 현황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어떠한 개선책이 마련되었으면 한다. 실제로 이들이 학창에서 배우고 익힌것은 초보적인 지식과 기술에 불과하지만 모름지기 건축계의 역군으로 동참시켜 적극적인 지도육성방법으로 건축에 관하여 깊고 넓은 식견을 갖게함과 아울러 건축계의 전문역군이 되기위한 자질향상은 물론이러니와 사회에 봉사하는 장인(匠人)정신을 심어주고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수 있도록 사회적 여건조성에 官이든, 민간이든 다함께 힘을써야 할 것이다. 물론 사회적 여건조성의 미숙으로 어쩔수없다고는 하지만 이는 국가발전과 경제성장에 따른 전문분야 인력수급의 정책적 초점이 빗나간데서, 그야말로 앞을 내다보지못한 무정견한 수급 시책으로보아 정책당국이 그 책임의 일부를 져야할 것이다. 지난 10여년간 국내외로 건축계의 건설경기가 호황일때에 늘어나는 업무량을 소화하는데 필요한 전문인력을 충당치 못하여 곤욕을 치루었던 시기를 상기할때, 비록 건축계의 景氣가 근간 침체가긴하지만, 오늘날과 같은

냉정히 살필때 제도적인 현행 건축사법의 불합리한 점을 개정치 않고서는 (예 : 응시자격기준, 시험제도, 개업기준, 특별전형 및 기타 등) 방향없이 늘어나는 인력과 한정된 업무량 관계에서 균형있는 수급은 바랄수도 없거니와 오히려 비생산적인 인력과잉 현상마저 벌어지고 있는 현실에 더욱 곤혹스럽기만 하다.

인력과잉현상으로 사회적 문제가 될 만큼 양상이 달라진것을 볼때 너무나 대조적인 현상이 아닐수 없다. 해방후 40여년간에 우리나라의 건축문화면도 시대적인 변천속에 오늘과 같은 괄목한만한 발전을 이룩한것만은 사실이다. 이러한 눈부신 성장의 그늘에는 이들 건축역군들의 공헌이 컸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다만 이들 후진들도 선배건축인들이 이룩한 업적만큼이나 활동할 수 있는 무대가 마련되지 못했을때, 젊고 유능한 인재들이 낭비될뿐만 아니라 오히려 사회적측면에서도 어떤 누를 끼치는 일들이 생기지 않을런지 상당히 우려된다고 하겠다. 앞으로의 인력수급 정책면에서 재고되어 생산적인 방향으로 해결책을 찾아내야 한다. 이러한 인력과잉현상은 기성건축인들의 사회에 있어서도 문제가 전혀 없다고는 볼수없다. 그 실례로서 건축사협회 회원으로 등록된 건축사들의 사무소운영상 업무수주에 따른 회원간의 과당경쟁에서 소위 덤핑행위에 대한 원인을 분석해보면 주로 건축사의 숫적 팽창이 그 원인이라기보다 회원 모두에게 골고루 업무량이 미치지 못하는 것이 그 원인이라 하겠다. 물론 자본주의 자유경제체제하에서 선의의 경합을 통하여 또는 적절한 선택 방법으로 책임자를 결정함은 발주자로서는 자유이며 또한 당연한 행위인 것이다.

그러나 건축문화창달의 일익을 담당한다는 지적소유권자격의(저작권) 건축사로서 뿐만 아니라 사회적위치에서 보더라도 투매행위 이전에 좀더 신중하고도 비굴함 없이 대처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수주에 급급한 나머지 그 자신의 권익은 고사하고 오히려 품위마저 떨어뜨릴뿐 만 아니라 다른 회원들께도 피해를 주는 행위임을 자각하면서도 체면불구하고 자행하는 일부 회원들에 있어 그렇게라도 하지않고는 사무실의 현상유지조차 어려워 어쩔수없다고 항변할런지 모르지만 一魚濁水 라는 말이 있듯이 투매행위로 회원상호간의 업무상 윤리문제뿐만 아니라 질서유지조차 어렵고 나아가 사회적으로도 評價切下의 대상밖에 안되는 건축사라고 볼때 전문인으로서의 자긍심은 땅에 떨어진것이나 다를바없다. 국가가 주관하고 시행하고 있는 전문인의 자격을 인정해주는 그 어려운고시에 합격하고 당당하게 건축사 면허를 취득한이상 그 권리를 행사함에 하등의 異議를 제기할 수는 없다. 다만 회원으로서의 공동이익을 위한 유대의식을 갖는한 편 면허에 대한 품격을 지녀줌으로써 지성적인 건축전문인의 진면목과 품위도 유지될 수 있다고 본다. 최근 협회에 등록된 개업건축사의 수는 '83년도의 2천여명이던 것이 '88년

3월 현재 2천7백50여명의 대가족으로 구성 되었다. 그간 5년동안 무려 7백50여명의 회원증가를 보고 해마다 평균적으로 1백50여명 안팎으로 증가되는 추세에 비추어 계속 불어날 전망이다. 문제는 증가일로에 있는 건축전문인에 대한 수급대책 및 개선방안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은데 있다는 것으로 안다. 해마다 새시대에 걸맞는 유능한 건축사들이 탄생되어 이나라 건축문화 창달을 위할뿐만 아니라 전문인력의 확보면에서, 또 회원이된 것에서도 반가운 일인 것만은 틀림없다. 그러나 냉정히 살필때 제도적인 현행건축사법의 불합리한 점을 개정치 않고서는(예 : 응시자격기준, 시험제도, 개업기준, 특별전형 및 기타등) 방향없이 늘어나는 인력과 한정된 업무량 관계에서 균형있는 수급은 바랄수도 없거니와 오히려 비생산적인 인력과잉 현상마저 벌어지고 있는 현실에 더욱 곤혹스럽기만하다. 시대적 추이로 보아 이제는 어느분야를 막론하고 “量”보다는 “質”적인 차원에서 평가하듯이 우리 건축사의 사회도 이러한 방향으로 제도를 수정할때가 왔다고 본다.